

제3편 집성촌(集姓村)

제1장 총론

조선 후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선조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특정 마을의 주도권을 가지는 동성마을이 생겨나는데,¹⁾ 그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이후로 이해된다. 이러한 동성마을을 포함해서, 여러 성씨들이 모인 촌락에서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주도적인 성씨들이 있는데, 이러한 촌락을 해당 성씨의 집성촌(集姓村)이라고 부를 수 있다.²⁾

가평에는 지금까지 여러 집성촌이 존재해 왔다. 다만 가평에서는 다른 경기 북부지역과 같이 집성촌이나 사족관계 관련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³⁾ 우선 지리지나 읍지의 기록을 통해 다음의 표와 같이 19세기 이전 가평의 주요 성씨

1) 이해준,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285.

2) 집성촌은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촌락” (『표준국어대사전』, 하,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p.5850)으로 간단히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근호는 “주도적인 성씨가 주도

표. 전통시대 가평의 성씨

시기 지역(옛명칭)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 1454)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18세기 (『여지도서』, 1765)	19세기 (『가평읍지』, 1871)
가평읍 청평면 북 면	가평현 (加平縣)	[토성] 탁(卓) · 간(簡) [망성] 장(張) [속성] 박(朴)	[토성] 장(張) · 탁(卓) · 간(簡) [속성] 박(朴)	[성씨] 탁(卓) · 장(張)	군내면 광산정씨 (光山鄭氏) 평산신씨 (平山申氏)
					북 면 광산정씨 (光山鄭氏)
					남 면 인동장씨 (仁同張氏)
					내서면 외서면 함열남궁씨 (咸悅南宮氏)
상 면 하 면	조종현 (朝宗縣)	[토성] 현(玄) · 호(胡) · 이(李) [망성] 형(邢) · 박(朴) [속성] 김(金) [내성] 한(韓)	[토성] 玄 · 胡 · 李 · 邢(邢) [내성] 朴 · 金 · 韓		조종상면 연안이씨 (延安李氏) 창녕성씨 (昌寧成氏)
					조종하면 연안이씨 (延安李氏)
설악면	미원[현] (迷原[縣])	[속성] 함(咸)	[토성] 함(咸)	[성씨] 함(咸)	

하는 동족마을(동성마을)을 포함해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성씨들이 모인 형태의 존락"이라고 설명하였다(『집성촌의 분포와 입지조건』, 鄭萬祚 外,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 集成村과 土族』,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12).

3) 지두환, 「조선전기 집성촌과 사족의 동향」, 鄭萬祚 外,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 集成村과 土族』,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55.

4) 정만조, 「조선중·후기 사족 변천과 집성촌의 발달」,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 集成村과 土族』,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117, pp.124-125.

와 씨족들을 파악할 수 있다.

위 표에 언급된 성씨들에 관해서는 이밖에 더 자세한 자료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성씨가 최소한 가평지역에서 유력한 씨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는지는 더 뒷 시기의 조사자료를 통해 미루어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밖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가평에 세거한 주목할만한 성씨로 연안이씨(延安李氏)와 용인이씨(龍仁李氏)가 꼽히고 있다. 이 두 가문은 모두 용인에 일찍이 자리잡았다가 족세(族勢)가 확장되면서 가평에 입거한 가문이다. 연안이씨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후손들로 가평군 상면에 터를 잡았다. ‘관동이씨’(館洞李氏)라고 불리는 조선 후기의 명벌(名閥)로서, 가평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이후 월사 이정구의 묘소를 그의 아들 이명한(李明漢)이 용인에서 가평으로 묘를 옮기면서 비롯된다. 이후 가문의 대표적 별서(別墅)로 관리되다가 이정구의 4대손인 우신(雨臣, 1669~1744)에 이르러 집성촌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용인이씨는 이보혁(李普赫, 1684~1762)의 후손들로 가평읍 대곡리에 자리를 잡고, 역시 연안이씨와 같은 시기에 용인에서 가평지역으로 별서와 묘산을 개척한 사례에 속한다. 이들 연안이씨와 용인이씨는 모두 서인노론(西人老論)의 당색을 지녔다.⁴⁾

표. 20세기 가평군 이(里)별 집성촌의 변화

지역	본관성씨	1930년	1953년	1988년	2000년대
가평읍	읍내리 安東權氏		28호	17호(81명)	17호[2005]
	仁同張氏				123호[2002]
	달전리 平山申氏		40호	70여호	
	두밀리 平山申氏		22호		30여호[2002]
	승안리 晉州河氏			11호(64명)	13호[2005]
	경반리 平山申氏				• [2002]
	산유리 延安金氏	19호			
	仁同張氏	38호	68호	80호(448명)	30호[2002]
	금대리 仁同張氏		58호		37호[2002]
	이화리 韓山李氏	25호	25호	16호	20여호[2000], 15호[2002]
	복장리 仁同張氏		43호		10호[2002]
	昌寧曹氏			37호(157명)	23호[2005]
	하색리 居昌愼氏		20호	32호(160명)	15호[2002]
	상색리 平山申氏		25호		

	지역	본관성씨	1930년	1953년	1988년	2000년대
북 면	목동리	隋城崔氏				• [2000]
		江陵崔氏				• [2000]
	소법리	慶州鄭氏	27호		29호(160여명)	10여호[2002]
	적목리	豊川任氏				4호[2000]
		密陽朴氏				4호[2005]
	이곡리	隋城崔氏			17호(75명)	10여호[2005]
全州李氏					• [2000]	
청평면	청평리	隋城崔氏			100여호(350여명)	
	상천리	仁同張氏			28호(116명)	
		全州李氏	28호	47호		12호[2005]
		南陽洪氏			21호(87명)	5호[2005]
		昌寧曹氏			50여호(220명)	35호[2000]
		金海金氏				金海金氏[2005]
	하천리	咸悅南宮氏		30호	66호(270명)	100여호(청평면 전역)[2002] 50여호[2005]
		全州李氏				10여호[2000]
	삼회리	全義李氏	20호			5호[2005]
상 면	연하리	全州李氏	20호			
	항사리	安東權氏				• [2005]
	행현리	全州李氏	38호	24호		• 호[2005]
		淸州韓氏		46호	42호(172명)	20여호[2005]
		仁同張氏				• [2000]
		崔 氏				7호[2000]
	임초리	宜寧南氏		20호	15호(74명)	• 호[2005]
	덕현리	昌寧成氏			15호(45명)	12호[2000], 8호[2005]
	상동리	彦陽金氏				20호[2000 • 2005]
	울길리	銀川宋氏		75호	28호(111명)	40여호[2000 • 2005]
봉수리	利川徐氏			19호(77명)	12호[2000], 19호?[2005]	
하 면	신상리	文化柳氏	40호		13호(56명)	9호[2005]
		東萊鄭氏				7~8호[2000 • 2005]
	하판리	全州李氏	25호		20여호(100여명)	5호[2005]
	상판리	高靈申氏	20호			• 호[2005]
	신하리	延安金氏	30호	33호	30여호(150명)	20여호[2000 • 2005]
	마일리	仁同張氏			14호(58명)	
설악면	대보리	東萊鄭氏	30호			• 호[2005]
	신천리	全州李氏			8개리. 65호(200여명)	50호[2002 • 2005]
	선촌리	廣州李氏				5호[2000]
	회곡리	原州元氏				6호[2000]
	사릉리	全州李氏				• [2000]
	송산리	江陵咸氏				5호[2005]
	미사리	慶州金氏			10호(48명)	
	엄소리	牛峯李氏	30호		20호(79명)	20호[2005]
	설곡리	諸葛氏	40호	24호	10호(42명)	11호[2000], 8호[2005]
	목안리	楊州趙氏	30호		13호	6호[2005]
방일리	宜寧南氏		27호	28호(98명)	15호[2000 • 2002]	

지역	본관성씨	1930년	1953년	1988년	2000년대
천안리	金海金氏	30호			5호[2000]
이천리	驪陽陳氏			14호(39명)	5~6호[2005]

*1930년 : 『조선의 성』(조선총독부, 1934). 이 조사는 1930년에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953년 : 『경기도사』(1953).

*1988년 : 『가평군지』(1991). 이 연구는 1988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 『가평의 지명과 유래』 상·하(2000·2001), 『한강』(2002), 현지조사(2005)

이후 20세기 조사와 기록에서 나타난 가평의 성씨와 집성촌을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세기 가평군 성씨별 집성촌의 변화

성씨	번호	본관	지역	성씨	번호	본관	지역
권(權)	1	안동(安東)	가평읍 읍내리	이(李)	20	전주(全州)	상 면 행현리
			상 면 향사리				하 면 하판리
김(金)	2	경주(慶州)	설악면 미사리		21	한산(韓山)	북 면 이곡리
	3	김해(金海)	설악면 천안리	임(任)	22	풍천(豐川)	가평읍 이화리
			청평면 상천리				북 면 적목리
	4	언양(彦陽)	상 면 상동리				가평읍 읍내리
남(南)	5	연안(延安)	가평읍 산유리	장(張)	23	인동(仁同)	가평읍 금대리
			하 면 신하리				가평읍 산유리
남궁(南宮)	6	의령(宜寧)	설악면 방일리				가평읍 북장리
			상 면 임초리				청평면 상천리
박(朴)	7	함열(咸悅)	청평면 하천리				상 면 행현리
서(徐)	8	밀양(密陽)	북 면 적목리				하 면 마일리
성(成)	9	이천(利川)	상 면 봉수리	정(鄭)	24	경주(慶州)	북 면 소법리
송(宋)	10	창녕(昌寧)	상 면 덕현리		25	동래(東萊)	하 면 신상리
	11	진천(鎭川)	상 면 울길리				하 면 대보리
신(申)	12	고령(高靈)	하 면 상판리	조(趙)	26	양주(楊州)	설악면 묵안리
			가평읍 상색리	조(曹)	27	창녕(昌寧)	가평읍 북장리
	13	평산(平山)	가평읍 두밀리				청평면 상천리
			가평읍 경반리	제갈(諸葛)	28	남양(南陽)	설악면 설곡리
신(愼)			가평읍 달전리	진(陳)	29	여양(驪陽)	설악면 이천리
	14	거창(居昌)	가평읍 하색리		30	강릉(江陵)	북 면 목동리
원(元)	15	원주(原州)	설악면 회곡리	최(崔)			청평면 청평리
유(柳)	16	문화(文化)	하 면 신상리		31	수성(隋城)	북 면 목동리
	17	광주(廣州)	설악면 선촌리				북 면 이곡리
	18	우봉(牛峯)	설악면 엄소리		32	(崔氏)	상 면 행현리
이(李)	19	전의(全義)	청평면 삼회리	하(河)	33	진주(晉州)	가평읍 송안리
			설악면 신천리				가평읍 경반리
			설악면 사릉리	한(韓)	34	청주(淸州)	상 면 행현리
	20	전주(全州)	청평면 상천리	함(咸)	35	강릉(江陵)	설악면 송산리
			청평면 하천리	홍(洪)	36	남양(南陽)	청평면 상천리
			상 면 연하리				

위의 일람표들은 20세기까지 이(里)별로 가평에 살고 있던 주요 성씨를 망라해 정리한 것으로, 총 36개 성씨가, 46개리에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평군 집성촌의 변화상을 시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성씨 가운데에는 조사나 기록으로 볼 때 집성촌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의 조사자료 가운데 『가평의 지명과 유래』(상·하, 2000·2001)에 나타난 마을의 주요 성씨에 관한 언급은 성씨나 집성촌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아니고, 마을의 지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36개 정도의 성씨가 가평에서 다른 성씨보다 역사적으로나 숫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1991년 『가평군지』에 수록된 집성촌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2장 가평지역 집성촌의 모습과 변화⁵⁾

제1절 가평읍

1. 인동장씨(仁同張氏)



인동장씨재실-복포사



인동장씨재실-인익사

인동장씨는 가평읍 금대리(金岱里)와 산유리(山柳里)·복장리(福長里)에 주요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455년(세조 1) 당시 병조판서를 지낸 장한신(張漢臣)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정착한 데서 비롯된다. 전체 호수는 1930년대 조사에

5) 이 장의 서술은 주로 『가평군지(가평군, 1991)』와 『가평의 지명과 유래』(상·하, 가평문화원, 2000·2001), 최근성·양상훈·변재웅, 『안강유역의 집성촌』(『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약술조사II-안강』, Vol. 1 환경과 삶, 경기도박물관, 2002)을 참고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최근 상황을 추가하였다.

서는 산유리에 38호가 있었고, 1950년대에는 산유리 68호, 금대리 58호, 북장리 43호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산유리와 금대리에 80호 448명이었다. 청평면 상천리(특히 2리)에도 분가해나갔는데 28호, 116명이었고, 상면 마일리에도 집성촌을 이루며 1980년대 후반 14호에 58명이 살았다.

2000년대에는 금대리 37호·산유리 30호·북장리 10호, 그리고 읍내리에 123호가 살고 있다. 금대1리의 경우 타성(他姓)은 3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동장씨이다. 근대화과정에서 읍내로 많이 이주하면서 원래의 집성촌보다 읍내리의 호수가 훨씬 많아졌다.

2. 창녕조씨(昌寧曹氏)

창녕조씨는 가평읍 북장리(福長里)를 집성촌으로 하는데, 조선초 조천주(曹天柱)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龍門面) 조현리(曹峴里)로부터 가평 조종(加平朝宗), 지금의 상면(上面) 덕현리(德峴里)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덕현리에는 조가터라고 전해지는 곳이 있다. 이후 후손들이 북장리와 청평면 상천1리, 그리고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松川里)에 거주하고 있다.

본래 조부 승달(承達)이 공민왕 때 신돈을 비판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내려왔었다. 신돈의 몰락 후 상호군(上護軍)이 제수되었으나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채 생을 마쳤다. 이후 아들 억기(億基)가 죽은 후 손자 천주(天柱)가 가평에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지역의 창녕조씨는 상호군파(上護軍公派)로서, 1980년대 후반 북장리에 37호 157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23호로 줄었다. 상천1리를 중심으로 청평 4·5리 지역은 1988년 50여호에 220명이 살았다. 후손들이 다른 지역을 합쳐 70여호 350여명이다.⁶⁾

6) 조규창씨(북장리 거주) 제보. 『昌寧曹氏上護軍公派世譜』, 2000.

3. 거창신씨(居昌愼氏)

거창신씨는 가평읍 하색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1리 갯골(진동(榛洞))마을에 가장 많이 산다. 경기도 광주에서 150여년 전에 선조인 신국빈(愼國彬)이 서울 부근(남양주 일패동(南楊州一牌洞))에서 살다가 부인 반남박씨의 고향인 이곳으로 낙향하였다고 한다.⁷⁾ 하색리 전체에서는 밀양박씨·반남박씨의 수가 가장 많고, 갯골에서는 거창신씨가 가장 많이 산다. 1980년대 후반 32호 160명이었는데, 진동마을의 경우 1950년 이전에는 15호 정도가 살았으며 2000

7) 최근성·양상훈·변재웅, 「한강유역의 집성촌」, p.232. 한편 이와는 달리 신박(愼璞)이 부인 순흥안씨와 함께 가평으로 낙향하여 거창신씨 가평낙향조가 되었다는 언급도 있다(신현정 편저, 『가평역사인물지』, 가평문화원 1997, p.142).

년대에도 15호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의 거창신씨는 참판공파(參判公派)이다.

4.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권씨는 가평읍 읍내5리 입내비(엽광촌)에 집성촌이 있다. 입내비는 엽광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보납산 아래 서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모양이 나뭇잎의 형상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졌다. 입향조는 250여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서 생활이 어려워 들어온 권세항(權世恒)이며, 1980년대 후반에는 17호 81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17호 60여명 정도이다. 가평군 전체로 본다면 200여호이며, 이곳의 안동권씨는 복야공파(僕射公派)이다.⁸⁾

8) 권연수씨(읍내리 엽광촌 거주) 제보.

5. 한산이씨(韓山李氏)

한산이씨는 가평읍 이화리 가래골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지금부터 250여년 전 이병(李炳)이 경기도 포천 가산면(加山面) 일대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1980년 대 후반에는 16호 정도이고, 가평군 전체로는 107호가 있었다. 2000년대에는 15호 정도이며, 이 지역의 한산이씨는 목은공파(牧隱公派)이다.

6. 평산신씨(平山申氏)

평산신씨는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달전리(이상 사간공파(思簡公派)), 가평읍 두밀리·상색리·하색리(이상 정언공파(正言公派)), 가평읍 경반리·북면·상면(이상 문희공파(文僖公派)) 일대에 세거한다. 입향시기는 신순(申恂)의 묘소가 가평 사정동에 있어 약 400여년 전으로 추측된다. 1950년 이전에는 두밀리·상색리·하색리에만 50여호가 살았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70여호, 2000년대에는 30여호가 살고 있다.

7. 진주하씨(晉州河氏)

진주하씨는 가평읍 승안2리에 약 390여년 전에 선조가 낙향하여 정착함으로써 형성되었다.⁹⁾ 한편, 우윤공파(右尹公派) 하서영(河瑞榮)이 가평읍 경반리로 낙향한 진양하씨 낙향조라고 언급되어진다.¹⁰⁾ 승안리 일대와 이웃 경반리에 1980년대 후반에는 11호 64명이 살았는데, 2005년 현재는 경반리 3호, 승안리에 10호 정도가 살고 있다.¹¹⁾

9) 가평군자연전위원회, 『가평군지』, 가평군, p.77.

10) 신연정 편저, 『가평역사인물지』, 가평문화원, 1997, p.332.

11) 하태운씨(승안리 거주) 제보.

제2절 설악면

1. 여양진씨(驪陽陳氏)

여양진씨는 설악면 이천리에 지금부터 약 250여년 전 강원도 홍천에 살던 선조가 이천리의 전말마을로 이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인근지역인 양평군 서종면(西宗面) 노문리(盧文里) 일대에 많이 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14호 39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5~6호 정도이다.

2. 양주조씨(楊州趙氏)



양주조씨 재실-탕화사

양주조씨는 설악면 묵안1리에 지금부터 300여년 전 양평군 용문(龍門)에 살던 선조가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일부는 사릉리와 가일리의 가정마을 등으로 분가하여 살고 있다. 한창 번성할 때에는 묵안리에만 30여호가 살고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13호만이 남았다. 2005년에는 6호 정도 살고 있다.

3. 전주이씨(全州李氏)

전주이씨는 설악면 신천3리(한거막(閑居幕))를 중심으로, 선춘리와 창의리·사릉리(수물 지역) 일대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의 전주이씨는 성령대군파(成寧大君派)이다. 조선시대 중종 때에 덕흥군(德興君)이 중종반정(中宗反正)을 피하여 풍수설에 따라 신천리를 택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후 임진왜란 때 그의 자손들이 피난을 와서 살던 중 일부가 정착하였다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1950년 이전에는 설악면에 250여호가 살았는데 1988년에는 8개리에 65호 200여명, 2000년대에는 50호가 살고 있다.

4. 경주김씨(慶州金氏)



경주김씨 재실

는 4호이다.¹²⁾

경주김씨는 설악면 미사리에 세거하는데, 270여년 전 양평군 양수리에 살던 선조가 배를 타고 북한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오던 중 미사리 장락산(長樂山) 밑의 운담마을에 이삿짐을 풀고 정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경주김씨는 계림공파인데, 1980년대 후반 10호 48명이 살았고, 2005년에

12) 김상영씨(미사리 거주) 제보

5. 우봉이씨(牛峯李氏)

우봉이씨는 설악면 엄소리 일대에 세거한다. 390여년 전 양주에 살던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처를 찾던 중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20호 79명이 살았으며, 2005년에는 20호 정도가 산다.

6. 제갈씨(諸葛氏)



제갈씨 재실-설곡재

제갈씨는 설악면 설곡2리에 세거한다. 이 지역의 제갈씨는 본래 남양갈씨 청주공파였는데, 2002년부터 갈씨에서 제갈씨로 환원하였다. 270여년 전 충북 청주에서 살던 선조가 전국을 유람하던 중 설곡리의 성곡마을에 와 보니 경치가 아름답고 풍수지리에 적합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 10호 42명이 살았는데, 2005년에는 8호 정도이다.

7. 의령남씨(宜寧南氏)

의령남씨는 설악면 방일리(陰方, 平村)와 이천리(영천마을)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의령남씨는 동강공파(東岡公派)이다. 입향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50여년 전에 양주목사(楊州牧使)를 지낸 동강공(東岡公) 남언경(南彦經, 1528~1594)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왜란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피난처 설악면 이천리 영천마을에 낙향하여 살다가 방일리에 정착한데서 비롯된다. 방일리에만 1980년대 후반 28호 98명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15호 정도가 살고 있다.

상면 임초리에도 의령남씨가 사는데 방일리와 다른 파로서 250여년 전 선조의 낙향·정착으로 형성되었다. 1980년대 후반 15호, 74명이 살았는데, 2005년에도 15호 정도이나 인구수는 줄었다.

8. 강릉함씨(江陵咸氏)

강릉함씨는 설악면 송산리에 세거했다. 송산리를 포함해 함씨는 설악면의 토성으로 존재해왔는데, 오늘날 특히 송산1리에 많았으며, 현재는 5호이다.¹³⁾

13) 함달웅씨(송산1리 거주) 제보.

제3절 청평면

1. 남양홍씨(南陽洪氏)

남양홍씨는 청평면 상천2리를 중심으로 청평리와 대성리 일대에 세거했다. 300여년 전 조선시대 숙종 때에 우송공(禹嵩公)이 낙향하여 정착한 데서 비롯하며, 1980년대 후반 상천2리에 21호 87명이 살았다. 2005년에는 상천리 전체에 5호 정도로 줄었다.¹⁴⁾

14) 홍완표씨(청평리 거주) 제보.

2.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

함열남궁씨는 청평면 하천리, 청평 시내 일대에 세거한다. 입향시기는 조선 영조 때로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에 살던 남궁황(南宮鎭)이 하천2리(마지기마을)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 지역의 함열남궁씨는 교리공파(校理公派)·대사성파(大司成派)에 속한다. 그 후 후손들이 생업 때문에 화전경작을 하기위해 북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 이전 하천리와 청평 시내에 50여호가 살았으며, 2005년에도 50여호가 살고 있지만, 호당 인구수는 크게 줄었다.

3. 전의이씨(全義李氏)

전의이씨는 청평면 삼회리에 세거했는데, 150년 전 쯤에 이곳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삼회리 전의이씨는 청강공파인데, 선조 가운데 이문성(李文誠, 1503~1575)의 묘소가 가장 오래되었다. 1930년대에는 20호 정도였으며, 과거 인구의 5~60%가 전의이씨였는데, 2005년에는 5호 정도이다.¹⁵⁾

15) 이상근씨(삼회2리 거주) 제보.

제4절 상면

1. 창녕성씨(昌寧成氏)

창녕성씨는 상면 덕현리 구정마을에 세거한다. 입향시기는 300여년 전에 선조가 낙향하여 구정동이라 칭하고 정착하면서 비롯되었다.¹⁶⁾ 수직(壽職)으로 청지중추부사를 지낸 성찬(成贊)이 낙향조로 알려졌다.¹⁷⁾ 1980년대 후반에는 15호, 74명이 살았다. 2005년에는 8호이다.¹⁸⁾

16) 『가평군지』, p.79.

17) 신연정 편저, 앞의 책, pp.147~148.

18) 성열안씨(덕현리 거주) 제보.

2. 진천송씨(鎭川宋氏)

진천송씨는 상면 울길2리 수역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620년 송안경(宋安敬)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2005년에는 40여호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의 진천송씨는 참의공파(參議公派)로서 송안경은 참의공 송명고(宋命古)의 6세손이다. 아버지는 5세손 억령(億齡)이다.¹⁹⁾

19) 증손 송진언씨(1921년생, 11대손, 울길리 거주) 제보. 이전 『가평군지』(1991)에서는 480여년 전 장원부사(昌原府使)를 지낸 송신(宋愼)의 낙향, 정착에서 비롯되었으며, 1988년 당시 28호, 118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주한씨(淸州韓氏)



청주한씨 재실-봉조재

청주한씨는 상면 행현리 측령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지금부터 350여년 전 마전군수 한상오(韓相五)가 병자호란을 피하여 행현리에 들어와 비롯되었으며, 후손이 13대에 이르고 1980년대 후반 42호 172명이 현재까지도 정착하여 살고 있다. 2005년에 20여호 정도 살고 있다.

4. 이천서씨(利川徐氏)



이천서씨교리공파가평종회관

이천서씨는 상면 봉수리에 세거하며, 270여년 전 서계익(徐繼益, 통덕량)이 중봉수(中縫縫)에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이 지역의 이천서씨는 교리공파(校理公派)로서 입향조인 서계익은 교리공파 시조인 진(晉)의 손자이다. 1988년 19호 77명이 살았는데, 2005년에도 19호 정도 살고 있다.²⁰⁾

20) 서효준씨(1936년생, 중봉수 거주) 제보.

제5절 하면

1. 문화유씨(文化柳氏)



문화유씨가평종중회관

문화유씨는 하면 신상리의 양추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입향조는 유홍(柳弘)으로 신하리[산 46번지]에 묘소가 있다. 이 지역의 문화유씨는 검한성공파(檢漢城公派)로서 6·25전쟁 전에는 40~50호 정도가 살았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신상1·2리에 13호 56명이, 2005년에는 9호 정도가 살고 있다.²¹⁾

21) 유인현씨(1934년생, 신상1리 새말 거주) 제보.

2. 동래정씨(東萊鄭氏)

동래정씨는 하면 신상3리에 세거하는데, 입향조는 과음공 정상조(鄭象祖)로서 그는 호음공(湖陰公)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손자이다. 이 지역 동래정씨는 호음공파로서 1960년대 초에는 50여호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9호 정도이다.²²⁾

22) 정진영씨(1935년생, 신상3리 거주) 제보.

3. 연안김씨(延安金氏)

연안김씨는 하면 신하리(新下里)의 신복(新福)에 씨족(氏族)을 형성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30여호에 150명이 살았는데, 2005년에는 20여호이다.

4. 전주이씨(全州李氏)

전주이씨는 하면 하판리의 외곡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이 지역의 전주이씨는 효령대군파로서, 현재 후손의 10대조 묘가 있는데 가장 윗 선조의 묘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보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약 300년 전부터 이 곳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25 전에는 5~60호 정도였다가, 1980년대 후반 20여호에 100여명이 살았다. 2005년에는 5호에 십여명이다. 이밖에 설악면에도 사릉리 등에 전주이씨 효령대군파가 많이 살았다.²³⁾

23) 이경석씨(하판리 거주) 제보

제6절 북면

1. 수성최씨(隋城崔氏)



수성최씨 재실-아곡사

수성최씨는 북면 이곡1리 내촌(內村)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입향시기는 330여년 전 인조 때에 중자(重字) 항렬의 11대 조모(祖母)가 독자(獨子)를 데리고 들어와 손을 이은 데서 비롯되며, 이와는 달리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난리가 일어나기 10여년 전에 낙향하였다고도 한다.²⁴⁾

24) 『가평군지』, p.80.

한편, 최운우(崔雲羽, 1634<인조 12>~?)가 23세 때 홀어머니 동래정씨를 모시고 경기도 평택에서 가평군 북면으로 낙향해 와 수성최씨 북면 낙향조가 되었다는 언급도 있다.²⁵⁾ 1980년대 후반 17호 75명이 살았고, 청평리와 대성리 일부에도 분가하여 살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 10여호, 35여명이 살았다. 2005년에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25) 신연정 편저, 앞의 책, p.325.

2. 경주정씨(慶州鄭氏)



경주정씨 재실

경주정씨는 북면 소법2리 남종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250년 전에 정달영(鄭達榮)이 출사(出仕)하기 위해 전라도에서 가평으로 정착하면서 비롯하였다. 이 지역의 경주정씨는 양경공파(良景公派)로서 정달영은 개국공신인 양경공 정희계(鄭熙啓)의 후손이다. 1950년 이전에는 30여호

였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소법2리와 화악1리에 29호, 160여명이 살았으며, 2000년대에는 10여호가 살고 있다.

제3장 맺는말

가평지역의 집성촌은 그 입향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500여년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동장씨(가평읍 금대리)나 평산신씨(가평읍 달전리)·의령남씨(설악면 방일리·이천리)와 같이 4~500년 전에 가평에 터를 잡았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주로 2~300년 전, 즉 17세기를 전후하여 입향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집성촌은 이보다 늦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성촌을 이룬 동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대체로 조상의 낙향이나 피난, 이주, 분가, 묘의 이장 등이 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상이 가평으로 낙향한 경우는 인동장씨(가평읍 금대리·산유리)처럼 중앙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거나,²⁶⁾ 거창신씨(가평읍 하색리)처럼 처가가 있는 가평으로 낙향한 경우가 있다.

둘째, 전란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한 피난이 계기가 되었는데, 전주이씨(설악면 신천리)·우봉이씨(설악면 엄소리)·의령남씨(설악면 방일리·이천리)·청주한씨(상면 행현리)가 그 경우이다.

셋째, 인근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와 집성촌을 형성한 경우이다. 안동권씨(가평읍 읍내리)·창녕조씨(가평읍 북장리)·한산이씨(가평읍 이화리)·여양진씨

26) 인동장씨 외에 북장리 창녕조씨, 이화리 한산이씨, 외서면 상천2리 남양홍씨, 설악면 방일리 의령남씨, 상면 율길리 진천송씨 등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장석홍, 「근현대 집성촌의 변천과 성격」, 鄭萬祚 外,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 集成村과 土族』,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p.235 236).

[설악면 이천리]·양주조씨[설악면 묵안리]·경주김씨[설악면 미사리]·함열 남궁씨[청평면 하천리]가 그러하다. 이 가운데는 창녕조씨처럼 인근 양평에 낙향했다가 이후 다시 가평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넷째, 집성촌을 형성한 뒤 인구의 증가로 분가하여 인근 다른 지역에 집성촌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 인동장씨(가평읍 금대리·산유리·복장리, 청평면 상천리, 상면 마일리)나 수성최씨(북면 이곡리, 청평면 청평리·대성리) 등이 그 예이다.

다섯째, 연안이씨(상면 연하리)처럼 묘의 이장을 통해 집성촌을 이룬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평지역에 터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향 계기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즉 우선 피난이나 묘의 이장 등의 경우를 볼 때 가평의 산세 등 지형지세가 입향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가평은 넓은 평지가 아니라 화악산·명지산 등이 있는 산세가 깊고 험한 전형적인 내륙산악지형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피난 등 은거하는데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러한 험한 산세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이 점은 사족(士族)의 경우 교통상 한강 수로를 통해 서울에 접근이 쉽고, 경제적으로 역시 수로를 통해 세곡이나 물산의 수송이 편리하다는 점이 입향하는데 작용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사족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평이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²⁷⁾ 때문에 가평으로 낙향하거나 이주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가평의 집성촌의 호수는 크게 줄고 있다. 이것은 비단 가평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사회가 산업화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대거 주변 도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의 경우 특히 서울이나 인근 남양주·춘천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집성촌의 호수는 크게 줄었다. 호당 인구도 대체로 노인세대 2~3인 정도만이 남아, 인구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는 20호 내외의 집성촌이 1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

27) 이근호, 「집성촌의 분포와 입지조건」, p.43.

김 태 욱 (가병군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이 윤 정 (한림대학교 박사수료)

여

백